

### 호주 최대 건강 축제서 환영받은 파룬따파

[ 밉후이왕 ] 파룬따파 (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자들이 멜버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마인드바디스피릿 (Mind Body Spirit) 페스티벌에 참가해 관람객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들은 관람객들에게 파룬따파를 알리고 중국공산당이 중국에서 파룬따파를 어떻게 박해했는지 말했다.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이 페스티벌에는 200개 이상의 단체가 참가했다. 호주에서 가장 큰 건강 행사인 이 축제에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개선할 방법을 찾는 방문객이 10만 명 이상 방문했다.

수련자들의 부스는 카페와 식당 앞에 있어서 유동 인구가 많았다. 부스 근처에서 연공을 시연할 때 우아한 동작과 잔잔한 음악은 행사장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호주 마인드바디스피릿 페스티벌에 파룬궁수련자들이 참가했다. 많은 관람객이 파룬궁에 관해 문의하기 위해 부스에 들렀다.

간호학과 학생 세릴 제이콥슨은 포스터에서 파룬따파 소개를 읽은 후 이런 간단한 수련이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에너지를 북돋아 주는 데 도움이 되며 무료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폴란드에서 온 물리치료과 학생 올가는 수련자들의 밝은 노란색 옷에 눈길이 끌렸다. 진선인 세 글자를 보고 그녀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다. 그녀는 연공하는 법을 배웠고 앞으로 연공에 참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말했다. “진선인 원칙은 이 세상에 매우 중요해요.”

넬라 베일에서 온 리 커즌스는 마사지 치료사다. 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하던 그녀는 파룬따파를 보고 반가웠다. 그녀의 건강 상담사가 그녀에게 파룬따파를 배워 침착함을 유지하고 생활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우라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무료로 강의와 연공을 배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커즌스는 기뻐했다. 그녀는 파룬따파의 원리가 자신에게 공감을 일으켰고, 삶의 모든 면에서 이 원칙을 따르고 싶다고 말했다. “저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파룬따파를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2년 전 파룬따파를 알게 된 모자

스튜어트 마틴과 그의 어머니 데니스 존슨은 22년 전 축제에서 파룬따파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 정확히 22년 전, 같은 축제에서 스튜어트 마틴과 그의 어머니 데니스 존슨은 파룬따파를 알게 됐다. 그들은 그 이후로 확고하게 수련하고 있다.

존슨은 연공하고 여러 해 앓던 폐기종이 나았다고 말했다. “현대의학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수 없지만 저는 수련 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수련은 또 침착하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련 전에 척추가 휘었었다는 마틴이 말했다. “연공하고 나서 척추가 곧게 펴졌어요. 모든 알레르기도 사라졌지요. ‘전법륜 (轉法輪)’을 읽고 저는 평생 찾던 답을 찾았어요.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저는 파룬따파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은 거지요.”



▲ 물리치료를 전공하는 폴란드에서 온 올가.

# 이탈리아 고등학생들의 가슴에 깊이 뿌리박힌 파룬따파

[ 명후이왕 ] 파룬따파 (法輪大法)는 2015년 이탈리아 남부의 고등학교에 소개되었다. 7년 동안 두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많은 혜택을 받았고, 연공 (煉功)은 이제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었다.

## ● 파룬따파 배우기

이탈리아 남부의 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파룬따파 (法輪大法)에 관해 배우 기회를 얻었다. 선생님은 파룬따파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박해에 대해 알려주었다. 학생들이 성숙함에 따라 중국 공산당 (중공)이 어떻게 이 수련을 박해하는지, 중공이 정치운동을 통해 중국 전통문화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등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다. 학생들은 파룬따파에 관한 비디오와 교공 비디오를 보고 다섯 가지 공법을 배웠다.

학생들은 중국에서 박해받는 수련자들에 관한 영화 수상작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일부 교사들은 수련자들의 자비와 정신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영화는 학생들에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어려움 속에서 행복하고 긍정적이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법을 배우게 해준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탈리아 국가고시에서, 종교의 자유와 중국 전통문화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일부 학생들은 파룬따파 수련자들을 박해하고 전통적인 가치를 파괴하는 중공의 범죄를 언급하는 답을 제출했다.

또한 이 학교들은 단체로 이탈리아 여행을 할 때 학생들이 선원 (神韻)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계획했다. 그들은 선원의 아름다움에 놀랐고, 중국 전통문화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다



▲고등학생들이 파룬따파에 관한 비디오를 보고, 선생님과 함께 연공을 하다.

고 말했다.

## ● 체육 시간에 파룬따파 연공을 하다

중국어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이 협력해, 체육 시간에 학생들이 파룬따파 연공을 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중국어 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반 학생들도 파룬따파에 대해 배우 기회를 얻은 것이다. 많은 학생이 연공하는 동안, 강한 에너지장과 평화로움과 침착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범공 부하고 연공한 후에, 더 행복하고 더 차분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파룬따파는 학교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었다. 교장 선생님은 파룬따파를 칭찬했고, 체육 선생님은 '전법륜 (轉法輪)'을 구입했다. 학교 홈페이지에는 파룬따파에 대한 정보와 계속되는 박해 소식, 파룬따파 연공을 하는 학생들의 영상이 올려져 있다. 일부 선생님은 학교 측에 교사들도 연공을 배우고 연공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 ● 학생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자비의 힘

파룬따파를 배운 후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어반은, 첫 번째 해에는 각종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해 통제하고 가르치기가 힘들었으며 각 과목 선생님들의 골치 아픈 반이었다.

두 번째 해에, 중국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파룬따파에 대해 말하기로 했다. 그녀는 파룬따파에 관한 진상 영화를 보여주었고 자료를 주며, 수련자들이 삶에서 진선인 (真·善·忍)의 원칙을 어떻게 따르는지 설명했다. 이는 봄비처럼 학생들의 마음을 적셨고 모르는 사이에 학생들을 감화시켰다. 모든 선생님이 점차 이반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조용하고 차분해진 것이다.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칭찬했고, 그들의 성장을 보며 기뻐했다. 다른 반 학생들도 모두 선생님들에게 파룬따파 연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대법이 그들에게 준 혜택을 깨달았다.



# 딸이 보름만 연공했는데 의사는 건강검진 결과를 믿기어려워 하다

[ 명후이왕 ] 2006년 8월 15일 저녁, 나는 파리에서 사위가 걸어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전화에서 “장모님”하고는 목이 메어 말을 못했습니다. 나는 긴장된 나머지 “무슨일이 생겼어?” 라고 다급히 물었습니다. 알고보니 딸이 예전에 임신해 병원에서 자궁을 3번 긁어냈는데, 그때 의사가 검진하다 암세포가 폐부로 전이된 것을 발견하고 딸에게 주원해 화학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사위는 울면서 “저의집 친척이 곧 파리로 오게 되니 리사(나의 딸)에게 가발을 두개 보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청천벼락을 맞은듯 다리가 나른해 났는데, 다행히 옆에 있던 남편이 두손으로 꼭 잡았기에 물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큰소리로 전화기를 향해 “어서 공(파룬궁)을 연마해!” 라고 웨쳤습니다.

## ■ 딸의 명을 구하는 방법

통화가 끝난후 나의 마음은 아주 혼잡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파룬궁을 수련한후 관심병과 위병이 다 나아진 것을 딸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딸이 파리로 유학을 떠나기 십여일전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 상반신의 여러곳이 분쇄성 골절상태여서 그때 딸은 놀라 울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병원에도 가지않고 집에서 연공을 해 단 일주일만에 기적처럼 회복된 것을 보고 매우 놀라워하면서 이후 그도 파룬궁을 연마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한 나의 마음은 평온해졌고, 따라서 나는 딸

을위해 파룬궁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당시 우리는 파룬궁을 연마한다는 이유때문에 중공의 박해로 고정된 거주지가 없었고, 잠시 남방에서 떠돌다보니 손에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 파룬궁수련생이 전부자료가 들어있는 MP3를 가져다 주었는데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부님께서 당신을 파견해 나의 딸에게 구명의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또 딸과 사위에게 10페이지로 된 긴 편지를 써서 지금은 오직 파룬궁만이 그를 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일심으로 견정히 대법사부님만을 믿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2006년 8월 19일 오후 나는 사위의 친척집에 찾아가 딸에게 보낼 물건을 넘겨줬습니다.

## ■ 연공한지 보름만에 딸은 정상으로 회복되다

2006년 9월 6일 저녁 8시 반 좌우, 딸이 직접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명랑한 목소리로 기뻐서 웨쳤습니다. “엄마, 나는 다 나왔어요.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후에 딸은 나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2006년 8월 24일 초저녁에 내가 그에게 보내준 MP3와 편지를 받았고, 이튿날 25일 아침에 그들 둘은 파리 13구 파룬궁연공점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딸은 연공대렬에 들어서기전부터 이미 파룬궁수련 초기 신체정화 현상이 나타나 구토하기 시작했고 걸레같은 검은 물질을 많이 토했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설사를 했는데, 당일 밤부터 그는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속해 3\_4일을 토하고 설사를 했는

데 나날이 상태가 좋아졌고, 신체내의 아주 더러운 물질들을 모두 배출하는 것만 같았다고 했습니다. 4일째 되는날 딸은 더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배설한 것들은 마치 물고기 기포같았는데 큰 것은 닭알 노란자만 했고, 작은 것은 작은 포도알(흰색을 띄움)만 했어요.”

2006년 9월 4일 좌우에 사위가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검진결과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검진결과를 믿기 어려워 아주 경악하며 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딸은 의사에게 “나는 파룬궁을 연마 해 나왔습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2007년 11월 19일, 딸은 첫 보배딸을 낳았습니다. 현재 그는 이미 두딸과 두 아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주 건강하고 사랑스럽고도 총명하며 모두 프랑스 파리 명후이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딸과 사위가 경영하는 회사도 아주 성공적이어서 당지정부를 위해 아주 많은 취업기회를 창조해 냈습니다. 지금 딸의 일가는 프랑스 파리에서 행복하고 유쾌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파룬따파 사부님께서 나의 딸에게 행복하고 완미한 가정을 주신데 대해 감은합니다!



▲ 딸의 네 아이들.

# 길림성 연길시 파룬궁수련생 박광훈 (朴光勳) '15개월째 실종'

[ 명후이왕 ] 연길시 조양천진 68세 파룬궁수련생 박광훈 노인은 잔혹한 고문으로 결국 장애인이 됐고,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다. 2021년 2월 6일, 노인은 연길시 진학파출소 몇몇 경찰에게서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알리지 말라”는 위협을 받은 후 2월 말부터 실종됐다.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그의 행방을 알 수가 없다.

2007년 1월, 룡정시공안국 룡문파출소와 시공안국 행정대대에서 고문 구타를 받은후 결국 장애인이 된 박광훈 노인은 정상적으로 길을 걷기 불편했고, 팔과 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노동능력을 상실했다. 그는 자식이 없는데다 홀몸이어서 보통 외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2020년 8\_9월에 연길시 진학파출소경찰이 박광훈의 집에 뛰어들어 불법 수색하고 그의 파룬궁 서적과 파룬궁 창시자의 사진을 강탈하고 박광훈은 이튿날에 석방됐다.

2021년 2\_9월 사이에 연변지구에서 파룬궁 수련생 여러명이 강제로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걱정을 끼쳤다.

## ■ 박광훈 노인이 박해받은 기본정황

박광훈, 조선족, 1954년 4월 24일 출생, 1995년 3월 26일부터 파룬궁수련을 시작했다. 신체는 정화되어 두통, 심장병 등 각종 질병이 다 나았고, 동시에 심성이 제고되어, ‘진선인(真善忍)’ 표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며 모든 일에 성심을 다했다.

2004년 4월 10일 10시에 박

광훈은 자택에서 연길시 공안국 국보대대 경찰 오순일(吳舜日), 서강철(徐剛哲)에 의해 납치당해 시공안국국보2대에서 그들 둘과 대장 장문수(張文洙)에게서 하루 종일 신문 받았다. 그들은 각종 잔혹한 수단으로 그를 괴롭혔고 여러가지 자세로 긴 시간 수감으로 달아냈는데 매번 1~4시간 동안 매달아 고문했다.

## ■ 중공 고문시연 : 등 뒤로 손목을 묶어 매달기

한번은 그들이 박광훈을 등뒤로 수갑을 채운후 줄곧 그가 의식을 잃을때까지 달아냈다. 저녁이되자 그들은 그의 다리를 강제로 찌지게 벌려 바닥에 앉게 하고는 경찰 서강철이 걸상에 앉아 두손으로 그의 머리를 힘껏 눌러 그의 목을 상하게 했다. 박광훈이 계속 굴복하지 않자 경찰들은 그를 내리누른후 등 뒤에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앞으로 당겨 오른쪽 팔이 크게 빼었고 또 비닐봉지를 그의 머리에 씌워 그로 하여금 숨이 막히게 했으며, 가죽 벨트로 그의 정수리를 채찍질해 줄곧 지칠 때까지 때렸다. 그후 박광훈은 강제 노동 3년을 선고받았다.



◀ 등 뒤로 손목을 묶어 매달기.

## ■ 중공 고문시연 : 다리 찢고 머리 누르기

2007년 1월 1일 밤, 박광훈과 조양천 파룬궁수련생이 함께 조양천 진풍림 촌에 가서 파룬궁진상자료를 배포할때 당시 치안관리 촌민에게 고소당해 룡정시 공안국 룡문파출소 리중건(李忠根) 등 경찰에 의해 룡문파출소에 납치됐다.

거기에서 경찰 김천길(金天吉)은 수감으로 박광훈을 달아 매고는 옆칸에서 아주 두껍고 딱딱한 판을 가져와 박광훈을 내리쳤고 그 물건이 박광훈의 머리를 내리치자 바로 부서졌다. 이때 파출소 정씨 부소장이 오더니 김천길더러 박광훈을 풀어주게한후 그는 의자에 앉아 질문했다. 박광훈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니 그는 심하게 뺨을 때렸고 한번 묻고는 한번 때렸는데 이렇게 십여 번이나 뺨을 때렸다. 그후 박광훈은 또 5층 공안국 형경대대의 큰 방에서 장시간 철의자에 앉는 박해를 받았고 철의자에 앉아서도 또 독매를 맞아 박광훈의 전신이 마비되었다. 최후에 박광훈은 3년반 노동교양 선고를 받았다.

이번 고문 박해후 박광훈은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했고 장애인이 되었다. 2008년, 박광훈은 부득불 집과 땅을 팔수 밖에 없었으며 그때로부터 갈 곳이 없고 생활래원이 없어 때로는 사회구제를 받고, 때로는 친척의 도움을 받고, 때로는 파룬궁수련생의 방조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가끔씩은 스스로 일해 생활 (6면에 계속)

# 정성 다하면 효험 있고 믿을수록 신통한 '9 자진언'

[ 밍후이왕 ] 작년 하반기, 나는 새 회사에 출근하게 됐다. 동료 A는 30 여 세인데 유방암에 걸렸고 이미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녀가 수술 전 회사에 휴가를 내려 올 때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9 자진언(九字眞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眞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염하면 평안할 거라고 알려줬다. 그녀는 염해보겠다고 했다.

나중에 병원에서 수술 전 병리검사 결과 양성종양이라며 집에서 보름 정도만 누워 있으면 관촬을 거라고 했다. 그녀도 신기해서 내게 말했다. 이전 검사에서는 종양의 80%가 암이었다고 했다. 당시 같은 병실에 그녀와 같은 증상의 두 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모두 암으로 사망했다. 그녀도 살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다. 뜻밖에 마지막 검사 결과 양성종양이었다. 그녀는 '9 자진언'을 염한 것과 관계있다고 느꼈다. 나는 "대법 사부님께서 당신을 구해주셨어요!"라고 말했다.

올해 3월에 여동생은 유방종양 진단을 받았는데 양성인지 악성인지 확정받지 못했지만 수술은 하기로 했다. 수술 전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었다.

수술 후 여동생은 스스로 수술대에서 걸어 나와 병실로 걸어 들어갔다. 회복이 빠르고 일주일 후 실을 뽑았다. 여동생은 1999년 이전에 한동안 수련했고 어머니와 나는 오랫동안 수련한 대법제자다. 여동생은 '9 자진언'의 위력을 완전히 믿는다. 그러므로 수술 과정에서 줄곧 묵묵히 '9 자진언'을 외었다. 나중에 동료 A가 들은 후 자기

도 같은 수술을 받았지만 그런 회복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수술 후 몸이 허해 집에 돌아가 2주간 요양했는데도 쉽게 지쳤다고 했다. 왜 여동생은 수술 후 즉시 수술실을 걸어 나올 수 있었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가? 나는 그

녀에게 '9 자진언'의 신기함을 알려줬다. 여동생은 진심으로 믿었다. 정성을 다하면 효험이 있다!

10여년 전,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대법 '9 자진언'의 신기함을 체현했다.

그 당시 교통사고가 한 차례 있었다. 사촌 형이 그의 부모, 내 어머니, 내 아내와 아들을 자가용에 태우고 가다가 급히 달려오는 화물차가 차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큰 충격으로 차에 있던 사람들은 크게 다쳤다. 사촌 형의 어머니는 팔이 골절됐고 사촌 형의 아버지도 갈비뼈가 골절되고 각혈했으며, 사촌 형과 아내는 내상을 입어 기침이나 허리를 굽힐 때 내장이 아팠다. 그런데 내 어머니와 아들은 무사했다.

당시 아내가 전화를 걸어 외지에 있는 내게 알려줬다. 나는 전화에서 확신하며 물었다. "어머니와 아들은 무사할 거야!" 아내는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말했다. "어머니는 대법제자고



아들은 대법 호신부를 지니고 있어. 모두 대법 사부님께서 보호해주셔서 위험이 없을 거야."

이전에 나는 아내와 아들에게 호신부를 지니라고 했는데 아내는 무시했다. 그 후부터 아내는 철저히 대법 호신부가 평안을 보장한다는 것을 믿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은 명확했다. 세 명의 노인 중 두 명이 골절됐는데 어머니만 무사했다. 어머니, 아내, 아들(2살)은 모두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가장 몸이 튼튼한 아내(20여세)만 내상을 입었고 노인과 아이는 무사했다. 대법 사부님께서 보호해주신 외에 또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당시 아이가 지닌 대법 호신부에는 9글자가 있었다. '9 자진언'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다.

그 후 10여년간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면 아내는 꼭 아들에게 호신부를 지니게 하고 자신도 지닌다.



## [ 명후이왕 ] 1. 촌서기 탈당

어느 장날, 채소 파는 노인을 만나 그에게 진상을 알렸다. 대법의 아름다움과 대법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점,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기이한 효과, 대법이 백여 개 나라에 흥전된 사실과 중국에서만 탄압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그는 공산당은 끝장났다며 좋은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나쁜 일만 한 다며 가망이 없다고 했다. 그에게 당원인지 물었더니 당원이면서 촌서기라고 했다.

그는 ‘삼퇴(공산당, 공청단, 소선대에서 탈퇴)후 말했다.“돌아가서 서기직에서 사퇴할 거예요. 지금 촌서기 하기도 어려워요. 위압적이고 우격다짐하는데, 나는 또 말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사교성이 없어 일부 일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워요.”라고 했다.

내가 말했다. “촌서기 직에서 사퇴하면 안 됩니다. 이미 ‘삼퇴’를 해서 신과 부처님의 보호가 있을 겁니다. 이후부터 민중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그들의 권익을 지켜준다면 그들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서기직에 탐관오리로 바뀐다면 민중에게 무엇을 가져다줄지 생각해 보세요.”

그는 듣고 나서 말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서기직에서 사퇴하지 말아야겠어요. 지금 세도가 많이 변했어요. 아직 채소를 하나도 팔지 못했는데 세금 10 원을 냈어요. 또 여기서 팔아서 안 된다며 다른 곳으로 찾아가라고 하네요. 가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이치인가요?!”

## 탈 당

## 2. 휴가길에 ‘삼퇴’하다

어느 날 어떤 젊은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파룬궁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소속 부대에 수련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삼퇴’ 했는지 물으니 아직 하지 않았으며 부대에서 탄압이 매우 심하고 매우 심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집에 휴가 나왔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만난 것도 연분이라 말하고 진상을 알렸더니 잘 받아들이고 ‘삼퇴’까지 했다. 그는 “전에 군인이 되는 것이 좋아 자녀도 입대시키려 했으나 지금 부대도 마찬가지로 부패하며, 관리직 대부분은 돈으로 산 것이며 이런 관리가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하고 말했다. 모든 것이 돈이며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나쁜 일이라도 다 하는데 중국은 철저히 끝장이라고 했다.

**우스운 이야기 ‘콧물을 붙이다’**  
몇 년 전 작은 가게 사장을

‘삼퇴’시켰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매우 추워서 얼 정도였는데 콧물이 줄줄 흘렀으나 휴지가 없어서 전봇대에 콧물을 닦았다. 금방 닦자마자 단번에 2명이 나타나 흉악한 태도로 나를 붙잡으며 돈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 나는 ‘큰일 났구나, 강도를 만났는데 하루 동안 판매한 돈을 그들에게 빼앗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큰 소리로 ‘돈을 뺏어요’라고 소리쳤다. 그들은 나에게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벽에 무엇을 붙였는지 물었다. 나는 멍해 있다가 말했다. ‘콧물을 붙였어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콧물이 흘렀는데 휴지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전봇대에 닦았어요.’

그들은 손전등을 켜서 전봇대에 비춰보고 매우 난처해하며 말했다. ‘당신이 파룬궁인 줄로 알았어요. 이후에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나를 풀어줬다. 그제야 나는 ‘잠복근무’하는 사람을 만난 것을 알았다.” 당시 그들의 그 흉악한 모습은 정말로 무서웠다.

사장은 나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이후에 더 주의하세요. 안전에 주의하세요!”

(4 면의 계속) 을 유지 해야 했는데 처지가 매우 비참했다. 박광훈은 두 번 노동교양 박해를 받았는데, 친척은 그를 구해내기 위해 도처에 다니면서 십여 만원을 썼다.

2012년 10월 25일 10시에 박광훈은 한 조양천에 있는 개인양로원(조양천태흥촌)에서 두명의 사복경찰에게 납치돼 연길시 이란세뇌반에 감금됐다. 세뇌반에서 두목은 사오자와 경찰을 명령해 위협, 기편등 수단

으로 강박하여 전향시켰지만 박광훈이 전향하지 않자 그들은 또 친척을 동원해 그를 강권하게 했다. 그들이 번갈아가며 2일간 박광훈을 괴롭혔기에 그는 거대한 정신적 압력하에 정신은 줄곧 고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버텨야했다. 3일째 되는날, 10월 27일 오전, 세뇌반 두목이 친히 전향을 강요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결과도 없게되자 오후 3시반에 조건 없이 그를 풀어주었다.